

이슈

2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2981호

옵선 없는 4년 125억에 양의지와 FA계약 | NC가 최후에 웃었다

양의지 마음을 돌린 ‘플러스α’는 뭐냐?

양의지 NC행의 발단이 된 이동욱-김택진 ‘식사 미팅’

(NC 감독) <NC 구단주>

NC 다이노스 이동욱 감독은 10일 오후 김종문 단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양의지(31)와 협상이 타결을 앞두고 있다는 희소식이었다.

사령탑에 취임한 직후 이 감독은 김택진 구단주와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감독은 구단주에게 팀 포지션별 전력을 설명했다. 김태군의 입대로 크게 약화된 포수에 대한 설명도 비중이 높았다. NC는 구단주의 강력한 전력보강 의지로 양의지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원 소속 팀 두산 베어스가 총액 12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액수를 제안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NC는 4년 보장금액 125억원에 사인을 받아냈다.

11일 2018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이 감독은 “양의지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전해 들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우리 선수가 된다는 말을 듣자 ‘최고의 포수와 새 구장에서 새 출발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장 필요한 포지션에 최고의 선수가 왔다”고 말했다.

양의지가 다시 얼어붙은 FA시장에서 파격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역 최고 포수이자 뛰어난 타격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감독은 “양의지가 포수를 볼 때 투수들이 느끼는 안정감이 다르다. 공격력도 뛰어나 타선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양의지 영입과 동시에 내년 시즌 NC를 향한 눈높이도 크게 달라졌다. 이 감독은 “큰 선물을 받았다. 동시에 부담이겠지만 큰 부담 갖고 한 번 가보겠다. 이제 성적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125억의 새나리!’ NC 다이노스는 11일 ‘프리에이전트(FA) 최대어’ 양의지 영입을 발표했다. 4년 총액 125억원, 역대 FA 2위이자 포수 1위의 금액이다. 양의지가 협상 막바지 단계였던 10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포수 부문 수상한 뒤 기뻐하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두산 옵선 포함120억, NC 옵선 없는125억 금액차 적어…NC, CF 출연 등 제의 시각도 제2창단 선언 김택진 구단주, 공격 투자 주요 두산“에이전트제 도입 대면협상 못해 아쉬워”

두산 베어스는 ‘팀 전력의 절반’이라는 극찬이 따른 프리에이전트(FA) 포수 양의지(31)에게 4년 동안 보장 금액 110억원, 성적에 따른 옵선 10억원이라는 대형 계약을 제안했다. 그러나 양의지는 11일 옵선 없이 4년 총액 125억원(계약금 60억·연봉 65억원)을 제시한 NC 다이노스 입단을 결정했다. 2018년 스토브리그 뿐 아니라 2019년 시즌 이후까지 KBO리그 전체 판도에 큰 영향이 파를 수 있는 FA 양의지 영입전은 NC가 최종 승리를 거두며 막을 내렸다.

●최소5억·최대15억원 차이로 이적 결정한 양의지

양의지는 2006년 신인드래프트 2차 8라운드 두산에 입단했다. 당시 2차지명에서 한화 이글스, LG 트윈스, SK 와이번스는 8라운드부터 지명을 포기했다. 양의지보다 낮은 순위로 지명된 신인은 8명뿐이었다.

당시 두산에는 홍성흔이라는 리그 정상급 포수도 있었다.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신인이었지만 김경문 감독과 김태형 배터리 코치는 양의지를 무척 아꼈다. 경찰 야구단에서 전역한 2010년부터 주전 포수로 기용됐다. 그만큼 두산에 대한 애착이 크고 김태형 감독을 은사로 생각하며 믿고 따랐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NC가 양의지 영입전에 참전하자 시장에서는 ‘두산보다 20~30억원 이상을 제시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양의지는 옵선을 계산해 최소 5억원, 최대 15억원을 더 제시한 NC를 택했다. 두산 김태룡 단장은 양의지의 NC행이 발표된 직후 “110억원을 제안한 것이 맞나?”는 질문에 “마지막에는 옵선이 더해진 금액

역대 프리에이전트(FA) 계약 TOP 5			
순위	성명·팀	계약기간	총액
1	이대호(롯데)	4년	150억원
2	양의지(NC)	4년	125억원
3	김현수(LG)	4년	115억원
4	최정(SK)	6년	106억원
5	최형우(KIA)	4년	100억원

으로 최대 120억원이었다”고 답했다.

●125억원→순수 국내 FA 최대계약

두산이 제시한 최대 120억원은 역대 FA계약 2위, 해외복귀파를 제외한 국내 FA로는 이미 최대 액수였다. NC가 제시한 금액과 차이가 크지 않다. 일부에서 ‘양의지가 향후 NC 모기업 CF에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모기업 CF출연료는 KBO규약의 통제를 받는 FA계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협의로 해석된다.

두산 관계자는 “에이전트제도가 도입돼 선수와 직접 대면협상을 하지 못했다. 에이전트의 훌륭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직접 마주했다면 양의지가 잔류를 더 고민했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NC는 내년시즌 사실상 제2의 창단을 맞는다. 숙원 사업이었던 신축구장에서 새 시즌을 시작한다. 김택진 구단주부터 전력보강에 관심이 높았고 가장 취약한 포지션인 포수 영입을 위해 공을 들였다. 공격적인 투자로 현역 최고 포수 영입에 성공하며 단숨에 전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양의지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두산 김태형 감독과 동료 선수들,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을 선택했다”며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회를 준 NC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왼쪽)과 NC 다이노스 이동욱 감독이 11일 열린 2018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만났다. NC는 시상식 직전에 양의지 영입을 발표했다. 김 감독은 이 감독에게 축하를 전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양의지 잃은 김태형 감독 “왜 아쉽지 않겠나”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은 11일 오전 김태룡 단장과 한자를 타고 ‘2018 동아스포츠대상’ 참석을 위해 이동 중 휴대전화에 ‘양의지’라는 이름이 뜨자 타 팀과 계약을 직감했다. 양의지는 가장 먼저 김태형 감독에게 전화해 NC 다이노스와 계약 사실을 알렸다.

김 감독은 “양의지가 ‘평생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서 가슴이 찢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고 말했다”며 “전화를 끊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특별한 내용보다는 아쉬움 속에 응원을 한 번 더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감독은 “왜 아쉽지 않겠나. 양의지는 제 1선발 투수와 비슷한 존재다. 그러나 프로선수로 내린 결정이다. 존중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적을 내는 것이 내 역할이다”고 말했다.

양의지와 김태형 감독의 인연은 특별하다. 김 감독은 배터리리 코치였던 2006년 고졸 신인 양의지를 처음 만났다. 김 감독은 “신인 때부터 함께 해서 그런지 서로 애잔한 그런 것이 있다. 이제 아쉬움은 잊고 그 공백을 지우는데 최선을 다할 때다. 박세혁도 똥가를 느낄 것이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물유래[식물성]
일양MSM100
일양약품 건강기능식품

계단만 보면 뛰어 올라가고 싶다..
관절/연골

유기황 MSM이란?
MSM은 연골, 인대, 연결조직 등을 구성하는 물질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안전성을 인정받은 소재입니다.

전화주시면 **30정 1통**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노화로 관절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
- 계단을 오르내릴때 불편하신 분
- 무릎, 허리가 불편하신 분
- 관절과 연골에 영양공급이 필요하신 분
- 하루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
- 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 과체중으로 관절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분

※택배비 2,500원 본인부담 510mg×30정

유기황 MSM 30정 1통 무료신청 ☎ **02-996-5837**